


 금융위원회	<div> <div>  금융위원회 </div> <div> 보 도 자 료 </div> <div>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 </div> </div>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보도	2021.5.3.(월) 10:00부터	배포	2021.5.3.(월)	

책 임 자	금융위원회 금융지원과장 김 정 명(02-2100-1670)	담 당 자	배 수 암 사무관 (02-2100-1672) 홍 재 선 사무관 (02-2100-1671)
	금융위원회 은행과장 김 연 준(02-2100-2950)		윤 동 욱 사무관 (02-2100-2951) 서 지 은 사무관 (02-2100-2954)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장 김 성 조(02-2100-2860)		안 남 기 사무관 (02-2100-2861) 이 영 민 사무관 (02-2100-2865)

제 목 : 기존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1 개 요

- 금융위원회는 금일('21.5.3일)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 「제39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오늘 회의에서는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 회사채·CP 시장 지원프로그램 운영방향, 중소기업·소상공인 신용등급 하락 부담 경감 방안,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특별 금융지원 가이드라인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 일시 / 장소: '21.5.3.(월) 10:00 ~ 11:00 / 영상회의
- ◆ 참석: (금융위) 부위원장, 사무처장, 금융정책국장, 금융산업국장, 금융안정지원단장 등 (관계부처) 기재부, 산업부, 중기부
(유관기관) 금감원, 은행연, 산은, 기은, 수은, 신보, 기보
(금융권) 국민, 하나, 신한, 우리, 농협은행

□ 도규상 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최근 IMF가 세계 경제성장률을 상향 조정('21.1월 5.5%→'21.4월 6.0%)하는 등 경기회복의 흐름이 빨라지고 있지만,

- 분야별로 차별적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어, 취약부문 금융지원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 1분기 국내총생산(전년동기) : 제조업 +3.9% 도소매·숙박음식업 -0.5% 문화기타서비스업 -7.4%

□ 코로나 금융대응과 관련한 '진단-대응 정책체계(framework)'를 통해 상황을 진단하고 금융대응 조치의 수준을 조정할 예정이라 하고,

-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까지 78.3조원이 지원되었지만 자금지원 상황과 시장수요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추가 및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작년 영업실적 악화 등으로 인한 신용등급 하락으로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자금조달 애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각 방안의 세부 내용은 금주 내에 별도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 예정

- 우선, 저신용등급(BB 등급) 중소기업의 P-CBO 프로그램 지원한도*와 회사채·CP 차환지원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 제조업, 유망·특화서비스 : 매출액 기준 금액의 1/4 → 1/3

그 외 업종 : 매출액 기준 금액의 1/6 → 1/4

** (회사채) A 이상 → BBB 이상, (CP) A2 이상 → A3 이상

- 회사채·CP 차환지원 프로그램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차환발행 뿐만 아니라 신규발행도 지원하여 취약기업의 자금조달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아울러, 금융기관의 신용등급 산정시 향후의 회복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부득이 신용등급이 하락하더라도 정상차주인 경우에는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비대면·플랫폼·디지털화 등 코로나로 인해 가속화된 산업구조 개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혁신기업에 대한 지원도 보다 강화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의 선정과 지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특별 금융지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 혁신성, 기술성과 결격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기업을 선정하고, 선정된 기업에게는 대출 및 보증 한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대출) 업종별 한도 적용 배제, 운영자금 한도 확대 적용(예: [산은·기은] 추정매출액의 20~50% → 50~60%, [수은] 수출실적의 50~90% → 100%)
(보증) 최고 보증한도 내에서 운영자금 한도 확대 적용(예 [산기보] 추정매출액의 1/4~1/3 → 최대 1/2)

○ 또한, 기간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현행 ‘기간산업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을 개선하여 대출조건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 협력업체의 다양한 자금수요를 충족하면서, 저리의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한편, 작년 3.16일 이후 14개월 가량 지속되었던 주식시장 공매도 금지조치가 부분적(코스피200·코스닥150)으로 재개되는 상황에서,

○ 정부는 금감원·거래소 등과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는 한편, 불법공매도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최고 한도로 제재하는 등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최근 코로나 확산세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위중한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금융권의 철저한 방역을 당부하였습니다.

3 코로나19 금융지원실적

①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주요 금융지원 실적(4.23일 기준)

- 1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14.8조원이 지원되었으며, 2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6.0조원이 지원*되었습니다.

* (기존 프로그램) 5.56조원 + (집합제한업종 임차소상공인 특별지원프로그램) 0.47조원

- 그 밖에 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40.2조원,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화를 위해 20.1조원이 지원되었습니다.

② 금융권 전체 대출·보증 지원 실적(4.23일 기준)

- 총 333.3만건, 357.4조원의 자금이 지원되었습니다.
- (업종별) 지원건수 기준, 음식점업(63.9만건)-소매업(52.9만건)-도매업(41만건) 順으로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 지원금액 기준으로는 기계·금속 제조업(61.6조원)-도매업(47.3조원)-섬유·화학 제조업(25.8조원) 順으로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 (유형별) 신규대출·보증이 총 195.6만건, 136.4조원 실행되었고, 기존대출·보증 대상 만기연장이 137.6만건, 220.9조원 이루어졌습니다.
- (기관별)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178.9만건/180.1조원, 시중은행을 통해 150.6만건/175.9조원의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 상세 통계는 <참고>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변인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주요 금융지원 실적

① 소상공인 대상 긴급 경영자금 신규 공급	목표금액	지원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종료, '20.2.7일~12.31일) * 기은 초저금리, 시중은행 이차보전, 소진공 경영안정자금 등 	16.4조	14.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10.0조	6.0조
기존 프로그램('20.5.25일~)	7.0조	5.56조
집합제한업종 임차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21.1.18일~)	3.0조	0.47조
② 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 확대	목표금액	지원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대출·보증 지원('20.3.16일~) 	37.8조*	40.2조
* 수은·산은·기은·신보 금리·한도 우대 대출, 특례보증 등		
③ 회사채 단기자금시장 안정화 지원	목표금액	지원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증권사 유동성 지원(종료, '20.3.24일~12.31일) * 한은 RP 매수, 증권금융 대출 	5.0조	10.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사채·CP·전단채 차환·인수 지원('20.3.30일~) * 산은 회사채 신속인수 및 차환지원, 산·기은 CP·전단채 차환지원 	6.1조	2.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신용 회사채·CP매입 지원('20.7.24일~) 	20.0조	3.2조 (32,351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로나 피해 P-CBO('20.4.1일~) 	11.7조	4.2조

* 수출입은행 '21년 신규지원 목표금액(8.7조원) 반영

※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프로그램(4차 비상경제회의(4.8.) 발표)

- 개별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지원(4.29일~) : 13,412건 (1,228억원)
- 신복위 채무조정 지원(4.29일~, 접수기준) : 11,283건 (4,615억원)
- 캠프 개인연체채권 매입(6.29일~) : 9,110건 (594억원)

□ 금융권 지원실적 집계(업종별·지원유형별)

(단위 : 건, 원)

음식점업	소매업	도매업	기계·금속제조업	운수·창고업
63.9만건 20.1조원	52.9만건 24.7조원	41만건 47.3조원	21.6만건 61.6조원	16.7만건 12.6조원
여행레저업	섬유화학 제조업	숙박업	자동차 제조업	기타
11.5만건 6.4조원	9.5만건 25.8조원	3.8만건 7.9조원	3.7만건 20.2조원	108.6만건 130.7조원

구 분 ¹⁾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		제2금융권		합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대출	신규	47.3만	51.1조	107.4만	62.7조	613건	585억	154.8만	113.9조
	만기연장	16.5만	51.3조	43.2만	113.2조	3.8만	1.3조	63.5만	165.8조
보증	신규	40.9만	22.5조	-	-	-	-	40.9만	22.5조
	만기연장	74.1만	55.1조	-	-	-	-	74.1만	55.1조
합 계 ²⁾		178.9만	180.1조	150.6만	175.9조	3.8만	1.4조	333.3만	357.4조

1) 정책금융기관 대출·보증, 시중은행 대출실적에 「민생·금융안정패키지 프로그램」 ①, ② 포함

2) 기타 금융지원 실적(이자납입유예, 금리인하, 수출입금융 등) 제외